

다니기 전

화를 못 찾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만하고 싶어 그나
욕심이 많았던 휴대폰을 손에서 못 뗐고
글 같은 걸 쓸 적이 없고 누군가 오면 만이 만나면
~~나를~~ 나를 기역 못 할까봐 절대 먼저 인사
하지 않았다 친구들을 좀 차별 노는 거 같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만날 때만 잘 대해주고
잘나고 앉아고 자주 나와서 미친다 12/22
을 때 사고도 잘 안 한다

12/22 목금 10명

(장)

말라진 점

2017. 12. 22

양다현

1. 생각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다.
2. 나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3. 전에 없었던 리더쉽이 생겼다.
4. 핸드폰을 떨 때 만족스럽게 되었다.
5.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되었다.
6. 많은 습관을 고쳤다. (종소리, 등)
7. 도움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8.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9. 발표를 항상 일찍 할 수 있게 되었다.
10. 책을 빨리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많은 책을 빨리 이해하게 되었다.
11. 사교성이 좋아지고 친구와 빨리 친해질 수 있다.
12. 먼저 드러나서 말을 걸고 의사소통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13. 학교 친구들에게 도울 때 이야기 수업, 국어 수업을 할 때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14. 옛날에는 핸드폰하던 시간이 짧았지만 바꾸어 말하는법, 토론, 질문, 아이디어 노트 하는 것이 있다.

다니기 전.

생각이 느리고. 처음들어왔을 때는 낫가림이
좀 심하고. 발표해도. 솔직게 들고 그래보는데
그리고 아이디어 노트나 인문학 일기 같은 경우
도 아이디어 노트 까먹고. 아이디어도 없고.
깜빡하고 안 가지고 다니고 그래 있는데 인문
학 일기도. 질문할 거 업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후루터는 인문학 일기 질문이 주워 해
지고. 아이디어 노트를 잘 가지고 다니고
이제는 어쩌다가 발표 늦게 안 한 적도 있고
낫가림만고. 친화력이 좀 더 생겼고. 그래도
많이 아쉬워 했던 게 인문학 일기나 하는 거
보면. 주위가 신만하고 내가 집중력이
없어서 인문학 일기가 다른 친구들 보라
많이 늦어지고. 못하는 것 너무 아쉽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더 소통도 많이 해
도록 노력하고 예별 말안쓰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고. 집중력이 더 향상되면서
진짜. 제2人生을 짬이 되고 싶다.

임민지

2017.12.22(금)

-정예은-

{ 짱 들어오기전 나의 모습 }

꿈은 있지만 꿈만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 이루어 나갈지 대책이 없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잘 알지 못했다.
당당했고 당당하다 못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내멋대로)
겉으로만 판단해서 처음에는 생소한 말미언 '짱'에 안도려 했다.

{ 짱에 들어온후 나의 모습 }

꿈을 가지고 어떻게 이어야 할지 계획이 생기고 평소 일상에서도
막힘없이 쉽게 계획을 써나간다.
사람과 살면서 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 한것이
무엇인지 점차 깨닫았다.
예전보다는 당당하지만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을 한다. 아직도 내멋대로이긴 하지만...
아제는 겉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속재가 없었던 나에게 짱이라고 나서 매일 앤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하다보니 구조화해서 마는 습관이 생겨져버렸다.
그 다음, 짱을 다니면서의 나의 변화는 잘모안거나 누군가 오거나
다툼이 있을때는 하루만에 사과하고 회개하려한다.
또, 내가 진짜 잘하는거,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할수 있게 됬다.

나는 계속 짱을 다니면서 생긴 미루는 습관 (원래 있었지만 능동) 을
꼭 고치고 리더역할을 너무 잘하고 싶고 짱리더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큰 일을 하고 내려오고 싶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아 힘들고 내가 진짜
리더인지 정치성 혼란이 오서, ^{내가} 포기한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운 감이
~~있는데~~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다.
별로

조다운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장에 다니기 전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게 어려웠는데

장에 대해서 새롭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보니까 그게 어렵긴 하지만 즐거워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 설렌다.

또 장에 다니기 전에는 중요한 발표 말을 할 때 계속 생각을 정리하다

발표를 놓치고 발표할 욕도 차 없었는데 장에서 발표를 계속하다보니

발표하기 전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진 것 같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 또 내 진로에 대해서 더 궁금해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그 전에는 막연히 바이올리나스트라고 정하고

연습만 하면 되 줄 알았는데 장에 대해서 아직 어떤

바이올리나스트가 되는 정확한 않았지만 그런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져게 된 것 같다. 또 인문학 일기와

멘토열도 때 하는 희망 말하기를 하면서, 그 말들을 기억하고 말을 할 때

쓸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말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독서감상문을 할 때 그 말들을 함께 스트레스로써 독서 감상문 쓰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다. 발표하는 거나 아이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예전에는 어렵게 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잘하기만 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 예전에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만 하다 그만두었는데

그런 생각을 줄여 된 것 같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짱을 다니기 전에는 일

김정근

PAGE
DATE

상생활에 육아 계획 책에서 많이 나왔는데

나는 짱을 다니고 나후에는 주변에서 육아
족이라는 막과 어한막을 많이 하지 않는
다는 막을 들었다. 그리고 짱을 다니기 전에는
꿈이 여러 가지에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부족 할지 매우 헤갈렸지만 짱을 다니고
나 이후로 꿈이 개조로 확정되어 (1) 그 이후
짱을 다니기 이전에는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 나오는 그동 대충 넘기고
그때는 짱을 다니고 나 이후로는 아이디어
노트에 깔끔 깔끔 써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짱을 다니기 이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막 한마디도 썼던 어느
지점 차였으며 냄새가 많이 많아서
냄새의 양은 사람과 악운 차이로 늘리거나
친구나 주변 사람과 악운 차이로 늘리거나
로 하려 알고 악운 억지로 막을 흘리거나
막을 했다. 하려면 짱을 다니고 나 이후로
는 모르는 사람은 과 남의 냄새를 차운 사람은
막을 깔 때 올수 있게 되었으며 그 다음
이 막이 풀리나고 주변 사람과 이어
기름 차이나 늘리거나 얘기하려 막을
이어나갔다. 또 생활을 많이 해 가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 것에 놀라울 때
도 와주었지만 전에는 정리 같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만 이후에는 나의 생활 정리를
하고 방이나 가방 정리 같은 것도 잘하기(YANGJI)

2017년 12월 22일 금

임지호

그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웠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서는 날을 가리고 말도 걸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장에 대하고 나서부터 처음보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더
쉬워졌다. 상인분들끼리 인터뷰를 하는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더
쉬워졌다. 그와 함께 재난감도 더 생겨났다. 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부끄럽고 긴장되었었다.
하지만 그장에 대하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말할 때 긴장되기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발표도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며 말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말을 더 명확하게
하게 되면서 내 의사도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전에는 내가 불편한 것, 싫은 것들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불편한 것에 있으면 확실하게
말하고 싫은 것이 있으면 싫다고 더 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비친 점은 저 도전적인
태도가 생겼다. 예전에는 친구가 축제 공연에 같이
나가자고 하면 귀찮아서 나가지 않겠지만
그장을 대하고 나서는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겨
친구와 함께 축제공연에 나가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바뀌었는데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전에는

그저 장래희망이 과학자였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내가 무슨 장래희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9/10
TFL 17/2+

2010년 12월 22일 월요일

2017. 12. 22 (박나연)

짱을 다니기 전과 후.

나는 짱에 다니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른 것 같다. 첫번째로 다른 점은 '낯가림'이다. 내가 짱에 다니기 전에는 낯가림이 정말, 너~무 심했다. 어느 정도 였나하면 내가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보는 사람 앞에서는 울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했는데 짱을 다니고 나서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먼저 말을 걸어서 친해지고, 친해진 사람과 더욱 친해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발표'이다. 짱에 다니기 전에는 발표가 가장 두렵고, 무서웠다. 학교선생님께서 "나연아 발표해봐"라고 하실 땐 어디 아픈 것 마냥 식은땀을 흘리고, 목소리도 기어들었갔다. 그래서 선생님과 나의가 애이고 선생님이 국어시간 때는 거의 발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짱을 다니고 난 후는 국어선생님께서 "나연이가 가장 발표를 잘하네^^"라고 하시고, 국어시간에 하는 "내가 나를 소개하기" 수행평가에서 만 점을 맞게 되었다. 또한, 외부에서 오시는 독서토론 전문가 선생님께서 '애(나)가 가장 말을 포악포악하고 속으로 ^{말하는} 알맞게 했다'라고 인정 받기도 했다. 나는 앞으로도 이 두 가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눈에 띌 만큼

짜장에 들어오기 전

장지혜

1. 자신감이 없었다.
2. 가족과의 대화가 많지 않았다.
3. 질문을 못 만들었다. (생각이 나지 않았다.)
4. 친구들을 잘 못 사귀었다.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5. 상상력이 부족했다. (과제가 있다면 계속 고민한 적이 있다)
6. 생각이 짧았다. (생각이 짧아서 오해를은 적이 있었다)
7. 풍기가 별로 없었다. (자신감 부족)

짜장에 들어온 후.

1. 아직 자신감이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생기고 있다.
2. 가족과의 대화가 많아졌다.
3. 짧은 못 만들지만, 질문을 만들수 있게 되었다.
4. 친구를 잘 사귀기는 못하지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5. 상상력이 풍부해 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있는 중이다.
짜장에 대하기
전용
6. 생각이 길어졌고,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7. 들어오기 전에는 ~~쓰~~ 씨앗이었지만, 지금은 새싹으로 성장했다.
8. 긴 소설 책도 끝내 되었다.

전

내가 짱에 오기전에는 내가 발표도 잘 못하고 장난기도
하는 것 배고는 잘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체육을 잘 못했
다 그리고 평생 쓸이나 친구가 없었고 발표할 때도
목소리가 작았 ^(아니 면심하게 크거나) 그 다음에 (유행이라
잘 못하고) 밤은 ^{도중에} 않 좋았다 ~~그리고~~ 그리고 다가온 ^{도중에}
하는 단어를 알지 못했고 아는 친구 아니면 잘 친구를 사귀지 못해 ^{해서}

| 년 후

후

하지만 짱에 오고나서는 발표도 잘하고 장난기도 많이 했었다
는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무대에서도 긴장감이 덜어졌다
하고 체육을 이제는 잘하고 평생 쓸과 친구도 생기와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고 날 다가온 하는 단어와 세계를 다가온
하는 단어도 알게 되었다 수리 ^도 늘었다 친구도 잘 사귀게
되었 ^서 그 다음에 용기도 생겼다

2017/12/21/목/임유찬

나는 짱에 들어오기 전 집에서도, 내 의견을
자주 못해 말해 놓지 못했는데, 짱에 다니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고

말을 해도 좀 더 세련되게 말하고
쓰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짱 맹비 들과의 소통으로 인해

소통 능력도 조금 좋아진 것 같다.

그리고 비켓리스트로 봉사하는 것을

많이 해서 봉사하는 마음도 조금 생겼다.

같고, 나 자신에 대한 비켓리스트도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다.

그리고 인문학 액로로 인해 단어의 의미를

비전설기로 인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상상력도 좋아진 것 같다.

(김승관)

장애 들어오기 전과 후

After

나는 짱에 들어오기 전에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발표와 질문하는 걸 싫어하고 우리학교에서
소문난 소심쟁이였다.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식이었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른채 공부하고 있어서 성적에는 헛함이 있었다. 그리고 맨날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는 식이었다.

Before

그런데 내가 짱에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었다. 그나마나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 생각자체가
다른데로 가있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로 풀 때마다 보니까 하나둘씩 단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맡은 말이 안맞아 졌다. 말이 안맞아서 농담과 질문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머릿속에 듣것이 많아졌다. 그리고 말이 많아지니까

더 활발해지고 능력이 성쳤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능이 넓어져서 넓게 들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을 넘어서 더 많은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와 부대들이 매우 많아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성적도 끌려가게 되었고 능력이 생기니까 악기 수준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새로운 악기도 도전해서 실력이 향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전정신이 풀타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성장하는 고정관념은 하나둘씩 깨이고 있다.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다른 고정관념들도 깨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저변 변화 된 것은 학내성과의 관계였다. 능력이 생기면서 기도로하고 싶었다.

그래서 계속기도 하다보니까 학내성과 친해지기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 기쁘다.

정에 들려주는

2

1. 자신감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발표하는 습관이 늘었다.
2. 인문학(인문학)을 통해 수많은 단어를 알기면서 학교外가 쌓여졌다.
3. 불편한 짐들을 용기있게 학교外에서 제시하였다.
4. 평을 통해 나의 진로를 알아갈 수 있었다.
5. 사실, 비판, 상상, 실천, 교훈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정에 들어오기 전

1.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2. 단어나 문장해석이 어려웠다 (고학년이나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
3. 새로운 언론을 훨씬 빨리 제시하지 못하였다. (불편한 짐을 제시하기)
4. 나의 끝이 쉽게 결정되거나 뜯하고 있었던 (진로)
5. 여러 종류의 질문을 만들 수 없었고 (사실) 질문만 거의 대부분이었

전

2017. 12. 21

안정민

내가 짱을 다니기 전에는 학교에서 발표를 잘 안하고 학원을 가지 않아서 시간이 2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맨날 텔레비전만 봤다 그리고 계속 놀기만 하고 잠을 잤다 그리고 내가 단어는 아는데 뜻을 몰라서 궁금했는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뜻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놀 사람도 없었다

==
후

내가 짱을 다니는 후에는 학교에서 발표를 잘 했다.
언제 짱을 다니게 되었는데 집에서 텔레비전
만보고 계속 놀기만 하지 않고 짱들 과정의 흥미로움
혹자만 아니 않고 짱들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뜻을 모를 때도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짱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

들 오기 전에는 저가 질문이라는 걸 생각도 못 했고
들여오기 전 가지 이瘴이란 데가 얼마나 저 ~~있는~~ 곳이
고 행복한 곳이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텐지 몰라서
긴장도 했고 집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처
음집에 있는 대영마가 여俸가지, 따라갔는데
기瘴이란 곳이었다 처음에 여기 올 때 첫 날
에는 많이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3주 일 다 나
고나니 금세 적응했다, 드러와서는 이 형
들이랑, 누나들을 많나서 많이 대화도 나누
고 같이 비전일기와 평생 친구 노트도 하고 푸
드로 도하고면서 더욱 더 친해지고 서로 많이 알아
가면서였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01기호

장에 오기 전

- ① 어떤 하나님의 일로 토론을 하는데 무작정 말을 하거나 무조건 무기거나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 ② 모든 산동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줄만 알았다.
- ③ 사람을 사귀는 법을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이 내게 말을 먼저 걸 때까지 말은 먼저하니 않았다.
- ④ 주의하여 일기를 쓰지 않으니까 상상력이 한계가 있었다.
- ⑤ 한동안 점진적으로 고급화하지는 않았다. ~~한동안 점진적으로 고급화하지는 않았다.~~
- ⑥ 어떤 하나님의 구제로 도움을 받다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느껴졌고 예뻤다.
- ⑦ 좋은 사람을 끝에서 친문하거나 발표를 하지 못했다.
- ⑧ 자유학구를 목적이 되미에게 지내았다.
- ⑨ 사회에 나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 ⑩ 주변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지 몰랐고 시호에게 대해 관심이 없었다.
- ⑪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면 신경을 쓰지 않았다.
- ⑫ 상대방에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다.

장에 들어온 후

- ① 본래 내가 되어서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고 ~~나에게~~ ~~마음~~ ~~마음을~~ 가졌다.
- ② 나의 성향에 대하여 더 알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오는 일이 더 많아졌다.
- ③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생각을 더 많이 한다.
- ④ ~~한동안~~ 단어가 아닌 좋은 뜻을 가진 단어를 알게 되었다.
- ⑤ 주변에서 더 아는 사람을 더 많아졌다.
- ⑥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고 스스로가 자존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 ⑦ 다른 광들과 더 많이 친해지고 사회 회당 경쟁행을 다니면서 주변이 더 많이 생겼다. (쓰기는)
- ⑧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 ⑨ 나의 또래분들이 아니라 선배, 후배도 같은 ~~인연~~ ~~인연~~ ~~인연~~ ~~인연~~ ~~인연~~ ~~인연~~ ~~인연~~ 그 나이 대의 모습도 알게 되었다.
- ⑩ 나의 것(오로기)을 만들수 있었다. (아내이던 일기).
- ⑪ ~~한~~ 사회에 나가면서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⑫ 나의 맘은 꼭 실천해야겠다는 걸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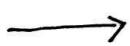
수유진

2017.12.22 (금)

짜을 다니기 전

짜을 다닐 후

한주제를 가지고 학생이, 요약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 학생이, 요약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쳤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발표, 대화)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 시간이 걸리지만 여전보다 더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거 되었다.

12/22. 금

기록

매주 버킷리스트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이번 기말만 해도 계획을 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버킷리스트로 했는데 항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 책을 더 보고 책상에 앉아 있었더니 결과가 많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다보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자기반성도 하게 되었다. 진지한 철학 고민도.

여러모로 '자장'을 통해 내가 나아갈 앞길을 다져 놓은 것 같다.

짱을 들어와 전후의 변화.

〈김영권〉

우선 짱을 다니기 전의 나는 남앞에서 말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고 그리고 진로설계, 미래 계획등은 듣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체 하루하루 계획없이 살며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무엇이고 잘 할수 있는지 무언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였다 하지만 A 짱이라는 곳을 경험하고 활동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거북했던 발표가 거부감이 줄어든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고 또한 하루하루 계획과 비전 없이 살아갔던 내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내 소통

장에 들어 와서 대화전집

1. 네는 원래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그 주장을 말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하지만 최근에 전대 선배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거부 흐름이 줄어든 것 같고
2.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내가 무슨일을 하면 좀 잘 미루는 성격이 있다
하지만 내 버킷리스트에서 무슨일에 ~~나쁜거~~ 하루지 말자는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그 행동이 좀 더 잘 치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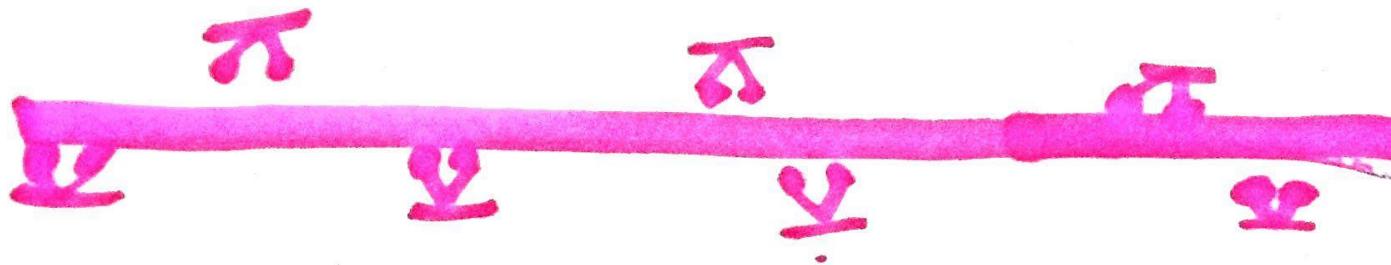
3.

장을 다니며 변한 점

나는장을 7/17(월)부터 부모께서
다녀보라고 하셔서장을 다니게 되었다.
장을 다니기 전보다 질문이 더 쉽고 빠르게
잘 만들어지고 버켓리스트를 통해
일주일간 약속한것도 잘 지켜졌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즐거운 경험이 많아진 것 같다. 앞으로도
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다녀야겠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짱을 다니기 전에는 아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질문도 별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질문을 만들 때 시간도 오래
걸렸다. 혼날 때 빼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이 물질이 많이 들어간 적이 있다.



짱을 다닌 후에는 아는 단어도 많이
늘었고, 인문학 일기, 집중점 응시, 아이디어
를 하게 되고, 인문학 일기는 단어를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집중점 응시는
별다를 게 없지만 이 물질을 빼는데 도움이
되었고 아이디어는 더 나은 생각을 할
미래의
수 있도록 해 주었다.

2019년 12월 20일 토요일

장례기전



죽어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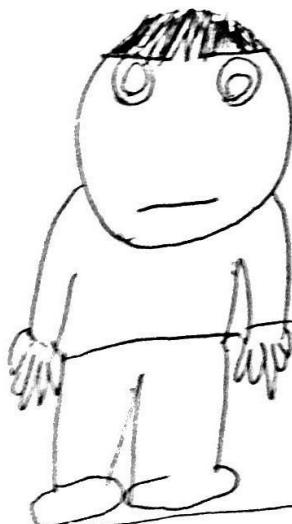
한 그장은 대기 전에 지금 무슨 그장을 아무도 몰랐는데
장난 무안 그장을 때는 사람들은 친구처럼 나와
줄게 지낼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옳을 달하게 되었고 그장을 때는 사람들은
하고 더 친해질수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친구와 더 많은 친구(언니, 아빠)하고
더 친해질수 있게 되었

2017/12/20

장을 다닌 뒤에 나의 변화점

일단 버킷리스트를 하고 난 뒤에 계속 일주일간
버킷리스트를 지키면서 나의 악습을 지키기 드물었지만
인물학 일기를 하다보니 처음보다 질문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

장 다닌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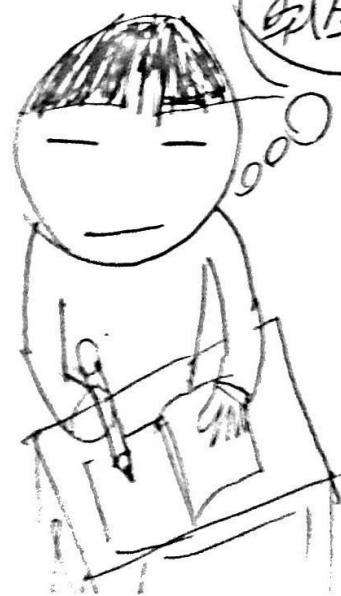


흐리멍텅...

장 다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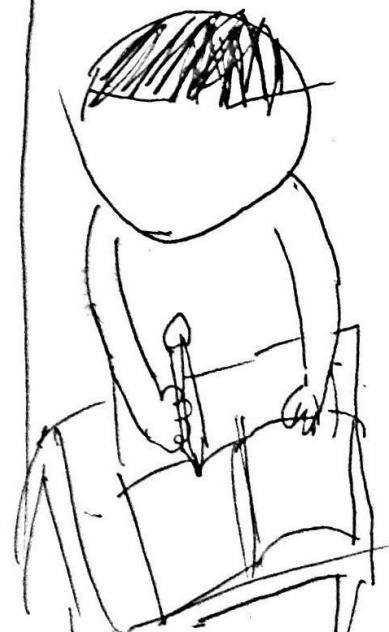


아 말다 이런 버킷리스트가
쓰레기롭기 아까!



질문
생각해?

질문 속도 증가



2017년 12월 20일 (수)

짱을 다니며 바뀐점!!

성격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짱에 오며 활발해
지것 같다. 그래도 소심하진 않았다. 또 질문을 잘하게
된것 같다. 더욱 많이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써서 내가 그걸이
주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활발해진 것 같다.
또 여행하며 내가 모르고 있는 곳도 여행하면서
알아가니 더 많은 곳을 알고 새로운 멘토님들을 만나
신기하고 재미있다. 그래서 활발해진 것 같다.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

박은우

2017.12.20

나는 짱을 7월 끝에 부모님의 소개로 인해
짱을 다니게 되었는데 나는 짱을 다니게 된 후
버킷리스트를 해서 하루하루 목표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보내고 있다 또
짱을 다니게 된 후로는 두 줄 폐화를 할려고
노력중인데 그전에는 요점만 말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짱 선생님의 제안으로 부모님의 호칭을
바꿔가고 좋대 말도 써가는데 그전에는
좋대 말을 쓰지 않은 걸로 보아
짱은 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빤하게 만들었다.

2019. 12/20 (월)

~장을 들의오기 전에는 질문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아서
질문 만드는 것이 어려웠지만 장에 들의오고 나서 질문 만들기
가 더욱 편리해 진 것 같다.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동하

5

2017. 12. 20 (수)

짱에 들어오기 전에는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말을 구하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었는데 짱에 들어오고 나서는 남을 배려해주고, 질문을 잘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남이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남이 말할 때 경험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

↑
하서